

<2022년 4월 25일 월요일 새벽, 주 말씀>

1.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실감이 안 난다고 하나니, 그렇지 않으니라.
2. 보이는 사람은 변화무쌍하니 믿을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변하지 않으시니, 그러므로 확실성이 있고 자기가 믿고 행하는 대로 절대적으로 대해 주시느니라.
3.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람을 완전하게 대하시므로 눈에 안 보여도 평생 사람을 속이거나 억울하게 대하지 않으시니, 때로는 약해서 못하고 속이고 완전하지 못한 사람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욱 실감 있는 존재자이시다.
4. 눈에 안 보여도, 사람이 보이며 옆에 있는 것보다 만 배나 더 확실하고 현실감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